

러버리고 범도소리 한마디 질너 줄 스름이 업도록 함이라
 려승디는 그 줄져 줄 모로고 구씨에 영병하는 것을 진심으로만 썩 알고 술 곳 반취
 흥면

(려) 여보마누라 마누라 스쥬 팔자가 남에 저식 잘 거 나 리게 타고 낫 습니다 엇지
 면 그러케 천스만스에 한결 갖치 구르시오

(구) 별말씀을 다하시구려 나만 못 할 어미가 엇의 잇스릿가 령감이 말슴을 하
 시니 말이 지경 현이 난 멀이가 잇고 며느리가 너속으로 나온 란옥보다 몇갑
 절 더 이지중지 함 습니다 란옥이 는 제어미닛가 엇의가 습으나 무엇이 먹고
 심으나 입고 심으나 제 밍음티로 죠르기도 하고 폐도 쓰지 만은 며느리야 지금
 저에 천정에 잇스면 솟습질을 그저 할나에 가지고 심은 것도 만홀터이오 먹고
 심은 것도 만홀터이 지 만은 누구을 향하야 기구 할터 난 업고 제 속중에 만 냇코
 참 난 것을 김히 생각 곳 흥면 불상 하 지 아니 함오

(려) 어 마누라가 참 말 통스정을 썩 할 난 말이오 실정 글 엇치 란옥이 처럼 졸
 으고 폐을 쓸 수가 잇소 그러 흥중 그이가 숙성 하야 인스범절이 여간 나 마은
 남즈가 짜라 갈 수가 업습니다

(구) 에그 참 인제 말이 지 우리 경 현이 가 밍낭 함 습니다

(려) 무엇이 밍낭 함 다고 함오

(구) 리락이 을 좀 드르 실라오 아모리 생각 하야 도 스너코 빈이라 밍낭 함 던 결

(려) 글세 웨그 리 함오

(구) 그이가 나 히어 리기에 아 죽 너 의 지경을 엇지 알야 함 앓더니 어 그것 참 곳
 밍낭 함 거 던 이오

(려) 웨그의가 제 안악에게 편지를 헛던 가 보구려

(구) 편지는 헛는 지 모로 겿소 마는 저쩌나 갈적에 은근히 돈을 몇 톨 량 간 쥬고 간
 나 볼 습니다

(려) 돈이란이 제가 엇의 서 돈 나 나서 쥬 엇 단 말이오

(구) 에구 령감은 모로 서도 그이가 돈을 더 영 쥬 엇 습니다 그러 처 안 으면 며느
 리가 돈이 어 되 서 나서 쓴 단 말 리오

지각이 쥬 등이 상되 난 스름이라도 금슬이 특별 흥 가 속 에 말 에 고희 흥 기 가 심
 상 팔 구 여 든 항 차 탁 현 편 에 갖 가 온 려 승 디 에 밤 낫 술 에 만 쥬 스 흥 고 구 씨 의 장 악
 중 에 서 뛰 여 나 오 지 못 흥 고 허 덕 허 덕 흥 는 위 인 이 리 오

산은 변 흥 고 물은 변 할 지 언 정 설 마 니 마 누 라 야 며 날 리 말 을 지 어 니 서 흥 라

흥 야 며 나 리 돈 을 쓰 드 란 구 씨 에 말 을 듯 고 심 분 에 일 이 부 은 의 중 이 흥 기 여 서

(려) 며느리가 돈을 써 그이가 돈이 어서 나서 쓰나 경 현이야 아모리 돈을 쥬고
 가고 심으나 제 슈중에 돈이 잇서야 안이 쥬오 부장 비는 너가 죽 전 으도 양복 던

에 주었고 로즈라던지 차스삭 선가를 집에서 저을 준적이 없고 너가 정거장에 서지 나갔다가 저쩌날데야 주엇난디 아모리 주고심은나 엇더케 주엇겔소

(구) 그리도 령감이 밋쳐모로섯지 저의 진정이는 양천셔 그저스난터코호면 천정에서 돈을 주엇는보다 호련이와 더의 천정은 총청도로 반이를호고 어서 돈이나셔 각금순단말이오

(려) 그러면 마누라가 잘못알았지 제가 무슨 돈을 썼겔소

(구) 나도 령감싱각갓치 드러셔 이들에 전호난말을 듯고 당치안인말을 말나 고호얏더니 가만히 여여보잇가 잇다금팔복도 쓴어드리고 종々밤참도 더러 스다먹는복되다 여보이런말드른체 마르시오 아저 젊은이히라 돈양이슈 중에 잇스닛가 입고심은것이라던지 먹고심은것을 더러사드리기가 레스온 다

(려) 무엇무엇샳싸는것은 엇지헛던지 돈이제가어셔는셔 써슬쇼요

(구) 제가 엇의셔 돈이낫겔쇼 어문은 몰낫셔도 경현이가주고 간것이온다

(려) 글세 아모리 싱각호야도 그놈이 돈이날데가 업는데 밍랑호일이로군

(구) 한노리로 긴밤시릿가 이말슴은 고만두시고 다른이약이나호십시다 호고 살임살이호노이런말 저런말호야 밤이들도록 휘지비지호얏더라 구씨가 그리등스를다시 귀구를안이호고 머나리를 일층더위호난 모양을호는디

려승디 심중에는 바씨의 돈스드란말이 은근히 의점이되더니 하로난 보름달

이 유명히 뵈은디 추월이가 사랑마루 압히나와셔

(추) 령감마님 마님께셔 엇주심이다

(려) 오나 드러가마

려승디가 추월에 뒤를쉴아 안으로드러가니 구씨마쵸 나아와 마즈며

(구) 목마르지안이호셔오 약주호잔 잡슈아보셔오

(려) 술은 웬술리오 집에히너우것이 벌셔다괴엿소

(구) 집에 술이우덥흔지가 이제나호인디 다괴엿셔오 오날밤에 달이호도 유명하게 뵈기에 술싱각이나셔셔 차져셔도호고 술을좀스오고 안쵸도좀 작만 호야노코 차즈시기를 기더려도 아모말슴도 업기에 엇주앗셔오

술소리를 드른닛가 려승디의 입이 귀밧가지 절로버려져셔

(려) 허허허허 마누라가 참니주정을 제법은고 숙불환성이라니 먹어보지

(구) 약주상을 이리가저을쇼요 갑々호디 모정으로가셔 잡슈케 할쇼요

(려) 모정이 허롭지안이호지 월석도 구경호고 관육이논어디갓소 벌셔 누어 자오

(구) 엇저녁에 밤이들도록 바느질인지 무엇인지 호답시코호더니 오날은 초저녁부터 곤히셔 잡바져잔다오

려승다는 압서거나 구씨난 뒤서거나 모정으로 올라가는데 그집이 기다가 뵈
 어서 뒤것에 죠고마흔 모정하나를 지여노앗는데 디형이 놓혀서 장안만호가
 눈압히 굽어보이여 달이나 밝은씨에 안져서 술흔잔 제범먹를만흔지라 너외
 가 모명우에가 나른이안져 장안을 너려다보니 만호천문에 등불은 휘황하고
 남촌북이에 거성은 낙역흔뒤 비싯히 쯤진안리가 목명산중허리로 한일스그은
 듯이 가로써엿더라 려승디가 물음을 락치며

(려) 허허 우리마누라 술먹는운치를 썩잘난갈 오날밤경치가 술흔잔안이먹
 고 적막히 자지는 못하겟구

(구) 내가 뉘마라라고 그만운치도 업슬가 추월아 날려가서 약쥬상 가져오너
 라

구씨겟혀섯던 추월이가 디답을 열쇠긋치고 너려가더니 거미그에 술상을가
 지고 숨이턱에 닷케 올라와서 려승지압해다 너려노으며

마님원네난 무서워셔 간신이 올라왔습이다
 구씨가 시침이를 썩째이고

(구) 방딩마즌년 무엇이 그리무섭단말이나 무섭은더년처럼 타난년이업셔

(추) 마님 저것쥬보십시오 원네가 무섭다고 안이하겟나

(구) 무엇이란 말이나

추월이가 손스가락으로 건넌방담을 가르치며

저것말습이야오

구씨가 총뜻난 포슈견양 보듯이 세웃이보다가

(구) 이의참 그개웬놈이나 도적놈인가 보고나

(추) 쯤도적놈인지 무엇인지 약쥬상을 가지고 장독뒤압홀 막오로란잇가 별
 안간에 스름의 쯤최가 저벅저벅나며 더담위로 웬놈이 불썬소스올나 오난
 것을 보고 웃지놀났는지 잣첫하더면 그자리에 쥬져안질번하얏셔요

려승디가 그말을듯고 괴상하야 고기를 세웃하야 브라보며

(려) 무엇드를보고 그리야단나

(구) 더것말습이야오 예그인제는 안이뵈이네

(려) 그개 웬놈인데 더담을 넘어가오 응

추월아 네형랑에 나가셔 네아비달려 구두쇠를 다리고 더담박그로 흥흥게
 썩츠가 보라고하야라

구씨가 손바닥으로 려승디의 입을틀어막으며

(구) 글세웨이리 썩들기부터하시오 도적놈이라도 그왕담을 넘어나갓스이고
 만이지 그리고 도적놈인지 무엇인지 자세알지도 못하교 엇지자고 썩들기
 부터 하신단말야오

추월이가 손스가락으로 건넌방담을 가르치며

저것말습이야오

구씨가 총뜻난 포슈견양 보듯이 세웃이보다가

(구) 이의참 그개웬놈이나 도적놈인가 보고나

(추) 쯤도적놈인지 무엇인지 약쥬상을 가지고 장독뒤압홀 막오로란잇가 별
 안간에 스름의 쯤최가 저벅저벅나며 더담위로 웬놈이 불썬소스올나 오난
 것을 보고 웃지놀났는지 잣첫하더면 그자리에 쥬져안질번하얏셔요

려승디가 그말을듯고 괴상하야 고기를 세웃하야 브라보며

(려) 무엇드를보고 그리야단나

(구) 더것말습이야오 예그인제는 안이뵈이네

(려) 그개 웬놈인데 더담을 넘어가오 응

추월아 네형랑에 나가셔 네아비달려 구두쇠를 다리고 더담박그로 흥흥게
 썩츠가 보라고하야라

구씨가 손바닥으로 려승디의 입을틀어막으며

(구) 글세웨이리 썩들기부터하시오 도적놈이라도 그왕담을 넘어나갓스이고
 만이지 그리고 도적놈인지 무엇인지 자세알지도 못하교 엇지자고 썩들기
 부터 하신단말야오

(려) 그놈령영 도적놈이지 무엇이란 말이오 저런놈을 그딴로 버려두었다가 자
미를들여 각금 드러오라고 감안이 잇스라오
(구) 아모럼 령감께서는 처엄보시닛가 그리시겟저오
홍더니 추월이를 저리가라 쫓고서

(구) 나도 너눈으로 보기는 처엄이오마는 저거번의도 추월이년이 뒤를보려
가더니 웬놈이 건너방담을 넘어오드라하기에 지금령감 말씀과갓치 도적놈
이나 드러왔노하야 감안이 뒤문을 열고 나와본즉 아모자최도 업길너 속으
음으로 경망흔 추월이년이 무섬을 몹시타서 헛것을보고 그리하얏나보다하
고 처지도외하얏더니 그덕게저녀의는 란옥이가 자다가말고 제형에방에논
무엇을홍려가라던지 뒤것으로 도라가더니 한다름에 도로 뛰여와서 갓득이
나적은눈이 더적어지며 어미를 붙으기에 삼작놀나 웨그리느냐 무러본즉
건너방모퉁이를 막도라 가노라닛가 웬놈이 화답답뛰여 담을 넘어가는것
을보고 혼이나서 뛰여왔다하기에 그제논 의심이 들기를 그놈이 도적놈갓
흐면련일왔노디 집안에 아모물건도 집어가지를 안이헛슬이가업고 요사실
련말이지마는 필연이집러가 세어서 어서헛것이 작란를 하나보다하야 일간
고스나 지너볼가하얏더니 오날 우리눈으로 보았구려 그런즉 령감이 썩들
지를말으시고 녀으신 극량으로 연구를 얼마썩히보시고 좌우간 엇더케 하

시던지하시오

려승디가 구씨에 말을 드르나 정신이 자루에너어 휘두르듯이 얼지근하야 아
모디답을 안이하고 입맛만다시고 안젓스니

(구) 공년히 마음을 상하지말고 약쥬나잡슈시오

(려)

구씨가 술을 령히 썰아 권하니 렬승디가 심스슈란하기에 쥬는디로 바다먹어
부지중 디취하얏더라

구씨가 디취흔 즈그남편을 추월과 부축하야 안방으로 너려다뉘이고 허장홀
장국을 마참준비해노코 술세기를 기디리난디 렬승디가 취중에 진정말로

에-투 그놈이 웬놈인디 우리집담을 넘어단여 응

에-투 그놈을 잡아다가 문초를 쥬하야하겟구

구두쇠야 너그놈쫓차가 잡아오너라

구씨가 손으로 입을 트러막으며

글세 웨이리하오 그놈이 붓잡혀오라고 거괴 우두권이 낫나베 잡아오게사
니량반이 웨이리 요량이업단말이요 제말덕분 썩들지말고 감안이좀 게셔요
남붓그런 디경이나갓소 목이 겹々하신티 이장스국이나 쥬아스시오
려승디가 취중에도 남붓그런지경 나갓다노말에 정신이 번져나서 나오난말을

뜻으로치고 감안이안져 흠참생각을 할야 보더니

(러) 여보 셔들지말아

(구) 예- 셔들지 말으시오

(러) 도적놈이 드러온것을 보고도 셔들지을 마라야 올겐소

(구) 도적놈이 무슨도적이란 마리오 그놈이 도적놈갓흐면 벌셔흔두번제안
이왔는디 우리집제간에 옹노귀흔기기로 이때까지 남아잇겟소 모조리 죄집
어갓슬터이지 우리집에 술사가락흔기 안이업셔지는것을 보면 그놈이 도적
놈은 안인디 무슨 걱정이 되야셔 도적놈도적놈호고 이리할시오 니말리셔
적당흔말이윈다 할구불설호고 감안이게시오

구씨가 항상무슨 괴상흔 일이나 잇는것을 말을안이호고 썩만싸는것처럼슬
몹슬몹하며 웃고남편다려 말을말나하니 려승디난 그중에 썩국이 통간이되야
못익의는체흔던말을 다시안이호고 술두어잔에 국멍복음을 마신후 정신차려
사랑으로 나아가 다시공품싱각호야 보아도 아모려도 담념머가든놈이 웬놈
인지알슈가업는지라 별々가지로 연구를할야본다

허허 그놈이 웬놈인고 도적놈인가..... 도적놈갓흐면 마누라 말맛다나
물품을 안이훔쳐갓슬이가 업는디..... 마누라가 더면더면호야 도적을
맛고도아즉모로나..... 안이 우리집에 돈푼싼것은 모다 마누라가 손슈

간슈할앗스즉 피련 마누라가 모다 조스호야 보앗슬터인디.....

어그놈이 며나리방에나 드러가 노리키와 신행적의복을 모다집어 가지나안
이헛슬가.....

잇다가 안에드러가거던 조용히 며나리를 불너 물러보아야할겟다
호고 셔반을 먹으려 드러가 즈기가궁이호야보던 리악이를 그 아오라진 구씨
다려호며

(러) 며나리가 건너오거든 마누라가 좀무러보오

(구) 령감아 웨그리 종작이업소 며나리이셔까지 안이물러보앗슬듯십소 무러
보기커녕 나와져와갓치 안져셔 제제간열쇠 열어노코 쌍그리도사 할야보았
다오

(러) 도사할닛가 한가지도 업난것이 업습더닛가

(구) 업기커녕 나 못보던것 몇가지가 더잇습디다

(러) 마누라 못보던것이 무엇무엇 잇더란말이오

(구) 그것은 더구나 알아무엇 흥신단말이오 도모지 그일절은 다시입맞게 니
저을마으시오 니말드러 설마 해로오릿가

려승디가 그후로는 그런말을 리구는 안이호나 의심은 종시 업지못호더라 박
씨는 그티눈치 더티눈치 모로고 아모조록 고구를 효성으로 섬기어 멀이가잇

는 남정의 부락을 저바리지안이호리라호야 서벽이면 이러나 소제를호고 밤이
 든뒤에야 잠을즈며 쇼셔문안과 침션법절을 잠시쉬지 안이호고 부즈런히호는
 티 그리노라니 여잔 시장호쇼도 만히넘기고 몸이 불편호야도 잠시 편히쉬지
 못호니 섬섬약질에 엇지몸살인들 안이리오 다리팔을 칼노의난것호호며
 머리을 독괴로 피난것호호니 견티다견티다못호야 할일업시 위셔호야 티동호
 논티 구씨가 무슨 큰일리난듯시 건너방으로갓다 안방으로왔다 령감을엇슈어
 라구두쇠를 불너라야 단법셔을호니 려승디 삼작놀나 뛰여드러와셔 구씨다려
 (려) 웨그리오응

(구) 웨가 무엇이오 큰일나소 머니리가 엇디 티 단하알는지 아쇼 말못되구려
 어셔 약을저어다 쓰게호시오

(려) 머니리가 졸지에 엇의를 그러케 티 단히 알는단말이오 무엇이 관격이되
 앓나보구려

(구) 나인들 그걸 알슈가잇소 앓가 안방에건너와 한구히 란옥이와 리약이을
 호고 건너간논티 거미괴에 은네가 발동거름으로 뛰여와 고급호기에 삼작놀
 나서 건너가본즉 일신이 안이압흔티가 엇다며 자리에를못붓고 이를쓰난티
 참아 스름의눈으로 엇의보게습더잇가

(려) 티관절 압호기난 엇의가 압호다고호습더잇가

(구) 오솔오솔침고 다리팔이 죽이난것갓고 눈을뜯슈업시 머리를들입더 패다
 호고 호는것을본잇가 그의가 좀우병호앗소 아마몸살이 낫나보오 설잡도리
 를호다논 여려날길것이니 피독산에단단히 가미을호야 두셔너첩너리다질너
 쓰게호시오

(려) 을소 마루라말이 근이호오 필경 몸살이난것이오 잡은츄 티려셔 련복을
 식입시다

려승디가 그티로 병복을져어 구두쇠를 불너 쥬며 이르난 말이라
 이이 구두쇠야 너 이병복을 가지고 한다음에 이으리쥬쥬부약국에 가서 약
 을 얼뜻 지어오너라
 구씨가 것을달어셔

구두쇠야 의원다려 이십전 부인이신티 불리 무병호시다가 별안간에 오한
 지절통 두통이 티 단호츄 으마 몸살인듯심으니 한두첩의 해풀이게 지어달
 나고호여라

구두쇠가 손에는 병복을 뵈이며
 (구두쇠) 여과다 적으섯겜습시오

(려) 오나 거과다 즈세히 적었다 어셔밤비 단너오너라
 건장호 구두쇠가 번기갓치 약국으로 가서 가미피독산 두첩을 지어왔논티 구

씨가 손쉬분주히 솟을핀다 약를더린다 련하야 그약을 먹이노란이 즈연 밤이 드렛는지라 련승디난 약먹이난것을보고 사랑으로 나아가 누어자난디 구씨가 추월을 으속후뒤뜰로 더리고 드러가 무슨말을 몇마디일으더니 손에 드렛든돈을 주며

추월아 아모도 못보게 얼뜻단여오너라 이일잘되기는 네게 썩달니었다 추월이가 예-예-

디답을호고셔 조고마흔 항아리하나를 초마속에다 감초아들고 뒤문으로 살짝 짜져셔 화기동네거리 더림방에가 물근선지 한항아리를 사가지고 왔더라 구씨가 추월이 등을 쓱쓱두다리며

(구) 내가 너업셔도 못살갓다

(추) 원네는 마님안아게시면 살슈잇슴잇가

(구) 오냐 요란스럽다 고만두고 네 찬광속에 드러가면 죽의젓독압히 오지중 두리잇지

(추) 예-예

(구) 그중두리 열고보면

항더니 무엇이라고 한참 귀속말을호고 뒤를늘너 당부하난말이라

(구) 이이 잘못하다가 탈로될나 넘오 급하셔들지 말고 감썩갓치 일을호여라

(추) 예- 거정말으심시오
호고셔 잘드느갈을 츄즈가지고 광스속으로드러가 무엇을호는지 한참 잇다가 나오더니 무엇을 초마속에 감초아들고 건너방으로 드러가 박씨부인 발치에 가안져 다리도치느체 허리도 줌으르느체 입을속에 손을너어 몸이 더운가 찬가 먼저보난체호며

(추) 아씨 거저치우심잇가 다리팔도 그저압호심잇가 아모리 압호셔도 무엇을 좀잡슈셔야 괴운을 차리심이다

(박) 약을먹엇더니 죠금정신이 느느듯하니가 잇다가는 으모게라도 좀먹을터이다

(추) 예그 아씨게셔 더러계 편치안으심잇가 마님게셔도 너무 거정아 되셔셔 진지를 잘아니 잡슈시고 이을넘어쓰세요 마님게셔 불으시기 쉬울터이잇가 원네난 건너감이다

도적를 마즈라면 기도 안이짓는다고 그썩 공교히은네난 어디을 곳던지 추월에 소위를 발까지 못호고 로주가 타연무심히잇섯더라 구씨가 추월을식여 건넌방동정을 살펴보다가 추월이가 눈짓두어번호는양을 보고 시침이를 쓱쓱이고

추월아

불론이 추월이가 보선발로 삼분삼분 멀죽이가서 뒤답을하고 오니

(구) 네 나아가서 령감마님엿쥬어라 관관스령이라 할만호 려승디가 일분부시
힘으로 드러오니

(구) 령감 머나리좀 드러가 보심시다 제가 불편히 할갑아 안이드러가 보시지
만는 몸이 압흐면 야속지심이 혼히나는디 제가말은 안이항야도 그런마음이
업스라는디 엿디잇소

(려) 마누라 말이올소 우리가셔봅시다하고 구씨난 압을셔고 려승디난 뒤를
셔셔 건넌방으로 드러간이 박씨는 니불을들으고 벽에가 기디여 안젧난디 은
네가 무슨피몽치를 분쥬히 치우는지라 구씨가 삼작놀는모양을호며

(구) 은혜야 그게무슨피나
(은) 천네도 모름이다

(구) 아리가져오너라 엿의보즈 그러케 몫시알러니 하혈이 되얏나보구나호며
피몽치를 썬아서 뒤져뒤져펼쳐보는데다가 아모말업시 도로 들들물뭉쳐 들고
셔셔

이이 며느라 너의 시아버지게셔 네문병 드러오섯다 그저그러케 압흔야 아
마비도 압흐겟구나
즈기가장을 도라보며

나가십시다

하고 문을 탁열어젧치고 압셔나가니 려승디가 식기에민 동명이 모양으로
줄줄살아 안방으로 건너오니 구씨가 그피몽치를퍼셔 압해다노으며

령감이것좀 보시오 이런남벗그러은 일이 엿의잇쇼 이럴줄알앗더면
약이나 함부루쓰지 말것을

려승디의 눈이 등그리지며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호며 드러다보다가 얼골빛치 변호며 묵묵히 안젧는디 구씨가 피덩어리 한아
를 두손가락으로 집어들고 이리더리보며

이것보아 팔다리논코 다싱기엇네 아마 셔너달 되얏나보다

려승디가 로과가 등등흔 음성으로 드립소 그것은 웨들고 이리호오 집안이망
호련잇가 어럽지 안이호지
란옥이가 옷간에 잇다가 특썩여너려오며

(란) 어머니 그게무엇이오

(구) 에라 규중쳐너는 볼것안이다

(란) 무얼 나도알아요 락티흔어린이지 어머니도 싹호셔라 인제야 그런줄알
으섯담 더리 야단을호게

(구) 에이 요망헌년 알기는 누가 무엇을 알고 야단은 누가 무슨야단을 할양았단 말이냐

(란) 야단안이면 그사짓것 왜가지고 드러다보시며 말씀을하시요 음바쳐낸뒤 로는웬놈이 밤마다 건넌방에 드러와자고 나간다는디 의말고 무엇은 못비 엿슬나구

(구) 이년 그러도 아깁이를 답치고 잇지못하느냐

려승디가 입맛을 썩사다시다가

(려) 란옥아 그개웬소리냐 엿던놈이 건넌방에을 밤마다 드러가 잔단말이나

(란) 웬놈인지는 알슈업셔도 밤이면 건넌방뒤스담으로 넘어올셔도잇고 넘어 갈셔도 잇는것을 나도몇번 보고 추월이도 몇번보고 어머니도 여러번 보섯 논디요

(구) 글셔요 네야 무엇을안다고 남신남신짓거리나냐 응어룬의 말을 말나면 감아나 잇는것이아니라

구씨가 엄품로 란옥의 티강이를 두어번 쥐어박아 니아쫓고 려승디를 향하야 령감 그사짓소리를 드른체도 말오시고 뒤슈쇄잘할일리는 의논하십시다 속 이그런줄만 알앗더면 괴독산이나 아나쓸것을 공연히 그것을써셔 더지경이 되얏소구려 사름을 죽으라고 너버려두는슈업고 하님을보시면 소문나기쉬

운디 령감게서 출입하시논체하고 슬며시가셔서 별징이나 업슬약을 몇첩간 지어오시오

려승디가 화를버럭너며

(려) 그개말인가절인가 그티눈치를알아스면 진시나 다려말을하야 움을질너노 더면 오날날이런변이업슬것을 슬슬싸고돌다가 일을터져줄너노코셔는 후탈 업슬약을 지어오라고 에 고약망척흔일이고 량반에집이 망하련잇가 어렵지 아니하고 약이라난것이 무엇말나죽은게오 당장제천당으로 그별하야 두집에 셔 피여안고 티미에셔려죽여 분푸리를흔디도 시원치안이할터인디

(구) 압다요란스립소 압뒤형편을 생각지안이하고 공연히 저러케말을하시어언 제는바로우리며너리 우리며너리하며뜻을 근디릴싸라하더니 별안간에 죽이 네살이네 죽이논사름도 합부루죽이고 설스죽이면 무엇이그리 썩사할셔싹소드려은소문이 한남걸너 두입걸너 경향에즈즈할터이니 그것은무슨설리란 말이오슬데업시쉬시기만 말오시고 니말티로하는것이 도출듯하오

(려) 그리나 다려 신위명스하야 간부에즈식나티흔 그며나리에 약을썩썩썩 가셔 지어오란말이야

(구) 약은고만 두드리도 가마니만 께시다가 도도독 조처을하시게하오

(려) 도도독 조처를 엿더케헌단 말이오

(구) 그조차 어렵지 안이하지요 그락티흔것을 하려비가 보았다면 저의세리속

덕공논을하다가 인구전파가되야 원장안에파다하게 소문이랑조할것을 띠힙

으로 우리가마춤보고 가져왔스즉 아모도모르게 파무더업시버리고 여전히

몸살난것을 치료하남모양으로 은근히파혈지지를써서 후탈이업거던 근천보

너는것처럼 제천정으로보되고 뒤밧쳐 너말전에는 을싱각말나 편지을송았

스면제가제죄를싱각하기로 다시을싱의도 못하련니와 설혹염치업시 오고

십은들 식점말업시 감히오겟소

(려) 예- 나눈모로겟소 마누라싱각되로하오

(구) 을치령감을랑은 아모말씀말고 사랑으로 나아가시오 너가다아모도 모

로게 처치를 할것이니

려승지가 쓰린지압흔지 분한지 괴막한지 엇덜타고 일흠지어 말할수업시되야

사랑으로 나와 공공싱각할수록 불덩이가 불싯불싯을나 오는것을 억지로참

으며 혼조하는말이라에- 괴약망축흔일이구 외양이라던지 범절이 고만하기에

그럴줄은모로고며느리를 잘엇엇거니하얏더니 그런힙실하조기가 천만의외지

마누라가저스하고 말류치안이하얏다면 너성품되로 당장 장도감을만드러שלשל

다시싱각할수록 분히못겟되겟구

녀여보면 리부에밥그르서 놓다논것이 비록속담이나 확실히리치가잇는말이라

일즈이후로난 박씨가분세수만 곱게하도 슈상히되이고 의복만 시것을입어도

슈상히보이어서 종종히구씨를보고

(구) 구씨가홍계를너여 추월이를식여 선지피를사온다 광속에잡으두엇던 쥐를버겨

박씨누은 입불속에다 감안이네케하고 짐짓려승지를 인도하야 드러가그것을

목도케흔일인디 그장 그며나리를 앗기논체하며 은근히 려승지눈치만보다가

진작처처하조는 말을듯고 속마음으로

을치인제야 너소원을 성취하게되얏다

하교가장큰걱정이나 되는듯이 눈살을 퍼지안이하고 머리를두들기으며

(구) 그세나도 밤낮걱정이요만은 웬만하거든 다시나 그런버르을 못하게단속

을단단히하고 아직너버려두면 엇더할가요

(려) 여보듯기실소 진작죽이던지 너썩던지하얏슬결 공연히조기가 엇더케조쳐

할터이라고 가로막더니 인제야잇싸위 말하라고 그리히소 싸두난것도분슈

가있지 그것한나로히서 량반에집이 결단이나도 싸고돌기만하면 제일리란

말이오 조쳐방법은 이왕에도말하얏거니와 제천정으로 보너는것밖에도리

가업난터 천덕으로보너난것도 그러쇼구려 그이락티흔것을 암만쉬쉬히셔도

아리사것들리모다 눈치를 짐작하는 모양인즉 석이 폭삭어 그 말이 업서 지거든 근친보이는 모양처럼 보니 잔말린디 그만히도 슈십일되야 그 때 말이 업서 절만 헛스나 오날이라도 제친등으로 보니 버림시다

(려) 을쇼 오날이라도 보닛시다 잠시라도 집구석에 그 더러운 것을 두고 견딜슈 가업쇼

(구) 덩그러실터이거든 처형이나 찰여 주시오 저다려일으기는 니가 할 것이니 러승지가 죽시구 두쇠를 불너 교군호처를 굶이라 하고 구씨를 제축하야 그며나리 를어셔가라고 일느라 지축하니 구씨가 못의의는데 하고 건넌방으로 건너가

(구) 이이야 오날떠나셔 친등근친을 가거라

(박)
(구) 우의덕답을 안이하냐나 처형을 다하야 노앗다

(박) 별안간에 근친은 왜가라고 하셔오 공부갈척에 졸업하고 도라오기 전에는 니외분슬하를 떠나지말나고 당부를 하얏는디 무슨 급한일이 있다고 가라고 별안간에 하셔오

(구) 별안간이다무엇이나 니의식아바지게서 발서부터 말슴하시느것을 니가 셴셴하마음이 드러서지금까지 너다려말을 안이하얏다 으허가 졸업을 하고 도라오조면지금도 스년이나 더잇셔야 할터인디 너의부모양위게서 철십당년이

신데 오날웃더하실는지 리일웃더실는지 모로는디 스년후에 성존히게실지도 밋을슈업스즉 아모조록 호로박비성전에 가회압논게 네도리상에 가고 또는 으허가 집에 업슬승시하야 단여와야지 졸업을 하고 집에와 잇스면버선 짝하나를 괴워주기로 네가잠시인들 떠나셔야 될슈가잇는나

(박) 제스정은 아모리 그러하옵더리도 가장의신신 당부도잇습고 넷글에너 즈유행이 원부모형제(女子有行이遠父母兄弟)라하얏스오니 친등부모를뵈옵는 스정으로 식부모슬하에 아모도업는디 엇지떠나가오릿가 불효에말슴이 오나 다른본부는 다거헹하야도 이번에는 거헹치못하겟는나다

구씨가 세모눈을 도치안케드며

(구) 이게웬버르장이냐 사름은불스하다마는 쇠위식어미가 일으면 그티로시 헹하난것이안이라 무슨잔소리나 오나그만하면 죽히알겟다 네가식어미를위 할야못떠나는 것이안이라 특별히못밋는디가 잇는모양이로구나

(박) 특별히못밋는디가 엇의야요 그게웬분부야요

(구) 그게웬말이나 웬말인지 진등몰나셔 나다려되못지말고 네가성각하야보 령오나

박씨가어글흔눈물이 두눈에서더벅더벅 썩러지며아모말을 다시못하는디 은네가분함을못의의역

(은) 마님원네가 영쥬을말씀이 잇슴이다 아씨게서 시서방님 당부를드르시고 천덕덕에를 안이 가시려는것이 미련호소견에는 디 단정당호 일인줄아읍난디 특별하 못밋는스름이 엇의잇다고 말씀을호심닛가

(구) 요년 방조호고 도량도량호년 무엇을안다고 량반의말참여를호야 남신남 신짓거리느냐 네아씨 못밋는디를 내가진정물나서 요년짓거리느냐 주동이 를홀터노을년 이년너브터 하날돌흔구경을식여 노앗슬것을 니가받낫싸고돌 아셔오날날싸지 무스호닛가 도적이미를들고 나선다고 되집어 무슨잔말이 나

호며박씨를보고

이이이러케 도호말로 이를적에 고집말고 진시켜나 가거라 공연히 초탈파탈 호다는 너의식아바지씩서 화가나신판에 도치못호거조가성길나 나도분정 지도에 말마디나 파히허련만은 그져아모말말고 어서떠나가거라 가서몇달 간잇게되면니가호못도륙쉽사리 도로오게 주션을호야주마

박씨가올며 가만히성각을 호야분즉 졸지에 그모양으로 천덕예을가라는것이 심상치안이호중 그시어머니에 호난말삿이 이상야릇호야 죽기호호고 아니 팔야다가글꺼니 올꺼니 식어머니말를 종러거역호기 어려워서 비오듯호는 눈물금치못호며 교군을타랴난디 은네가달여들러 교군문을가로막으며

(은) 가시기는 엇의올가셔요 이러케 호락호락호게 가섯다가 뒤삿히무스흠을 쓰실라고 방으로 드러가십시오 세상업셔도 못가시지요

(구) 이년 네모음디로못가 아씨가고 안이가는디 네가참첩이무엇이나 너부터 썩려죽일것을 남이부트그러워 터버려두닛가

(은) 원네가 무스죄가잇다고 썩려죽이셔요 원네는 썩려죽이신티도 으씨는못 가시게홀터이야요

(구) 네죄를 네가물나 이년으씨 나티호것은 누죄일가 모다네년 조화이지 그말이구씨입에서 썩썩러지니 박씨난 얼골이파라케 질이여야모말도못호고은 네는 분호다못호야 스지를벌벌떨며

(은) 락티란말이 웬말씀이은닛가 며나님이밧거던 그져밧다지 이련이미호소 리도잡아니셔오

(구) 이년의미 네눈설노보고도 이미

(은) 예그만호면 알앗슴니다 성스름을 잡으려고 언의몹슬년이 쥐씩기에션 지피를 못쳐다가 정신도모로논 아씨가불속에다 너은것인되 그것을나티한 것이라고 말씀을호셔오

구씨가달여드러 은네에디강이을움켜쥐고 이쌈 저쌈치며

요년이앙콧호고담티호야 스름긋철년 성쟈이을떼여도 분슈가잇지 무엇쥐씩

기 선지 피땀여디기는 어저잔하게 잘쉬며된다 그리면너가 이뉘말하느니
나 오니 이년네가 못박이나 너가 못박이나 하야보지
하더니 추월이를 별락갓치부른다

(구) 추월아 추월아

(추) 예 예

(구) 네나가서 령감마님 엿슈어라 츄짜츄짜하얏더니 아모려도 못참겟다

추월이가 큰성공이나 할일이 잇는듯이 사랑으로 나아가더이 텃치열슈어 안

이 밧골 령승지가 추월이궁동이을 줄줄짜라드러오며

(려) 웨드러오라고 응

(구) 웨는웨야요 며느리가 지금떠나가닛가 하적고하는것 밧드시란말이지

(려) 나는하직도 귀치안타 어서떠나 가거나하라지

박씨부인이 즈괴시아바지 드러오난것을보고

설마시아바지야 말하마디을히도 은정이잇게 할터이지

하얏더니 어서떠나가라노 말을듯고 괴가더욱막혀 혼즈말로

에라 일이다 글넷다 식어머니 용심은 이왕짐작하느디이라 모함을잡거느니

박을하거나 의레그러하거나 하얏거니와 태산곳치바라고잇던 식아바지게서

도모음이변하셔서 저러케말숨을하셔니 너가아니갈라고 고집하단담 점점모

양만더스나올터이니 아직두분뜻을 거스리지말고 천정으로 가있다가 가장

이 졸업하고도라오거든 너가죽던지 발명을하던가 좌우간 죠쳐하느일이올라

하고 식부모압하와 절두번을날라갈듯이하고 마루아리너려서 교군블타랴하느

디 은네가 달여들러 저의씨에 초마스자락을 잡아달이며

아씨엇지하자고 가시라드르심잇가 아씨게서 흥도기가바늘아된티도 가시지

를안코 이뉘에게서 이뉘하느명을씨셔야지 이모양으로 가시면 식딕에는

아쇼하직하셔는날인티 발명을못하고 영영누명을쓰고계시랍시오 못가심이

다세상업셔도 못가심이다

박씨는 우두커니셔셔 눈물만비오듯하느디

구씨가발을동동구르며

령감저년을 가마니너버려두고 보시오식딕에을 영영하직이라니 그년에말이

더욱수상치한은가

려승지가착할제는아조티화랑이다가도 심술이나기를하면 불꽃흔강변에 덴소

남썩듯하느위인이라 구씨의말에부화가 부루터올나와서 체면도리볼여부업시

달여들어발길로은네을차며

이년요망호년 네가도모지 엇더케성긴년년티 량반에딕을결단을 너려드나나
은네가악이밧작나셔

(은) 원네가 덕을 결단하려 들음잇가 결단되는 분은 사로잇슴이다 원네난아 못쥌
 록덕야 결단아 나나도 록 정성을 다하난년이 올시다
 (구) 이년결단년난사름이 사로잇다하니 나를 두고 비유하는 말이로구나 요년
 년가오모리 변변치안아도 네년에게 이육은당하고 그덕로 너 버려 두지 못
 할갓다

(은) 너 버려 두지 안이시면 죽이시기 밧게 더하시게슴닛가 원네는 열스 번죽드리
 도 무죄한아 씨만 쫓지 마르십시오

(구) 더년이 거거익심일세그려 아씨를 상쫓는 것이나 근천사기난 것이지 안
 이홀말로 네말과 갖치 쫓는다고하조 그리가로네가 지금 안이쌘게 누구를호
 유하난 모양나

(려) 이이구두쇠야 네져년을 썰너스줄노 잔득목거 마쥌스디에동그라케 미아
 달고 잔치질을 피가 썰스흐르도록하야 반죽죽여노아라

구두쇠는 홀아비놈으로 려스디집에서 구종노릇을하며 은네에게 비부들모음이
 근절하야 몇번말을동히보아도 은네가 저스하고 텅중치안이하니 모음에홍상양
 양하야 모쥌면은도야지 버르듯하든초에 미달고덕리라는 상면에분부가 썰셔려
 지닛가귀가 번적디여 우악홀노이와르르달너드려 어린손목을잡아나구쳐 썰너
 스줄로 천천동이더니 쌍에말이 한세염은 드끼미으달고 썰리비를 글너잔치질

를하는디 상면년의는 말버릇잘못할수죄하고 구두쇠는은근이 은네알아 드를
 만치

이년년가 너를별이고 벌너던이라니가 눈이업난야 코가업느냐 엇의가 병신이
 나 나와살조잇가 안이쌘게도라니리게 지금이라도 너소청만드르면 벼락치
 는하늘을속이갓는나 네몸이압호지안이하계 혈장을하야쥌갓다마는 일하고
 집곳하야보아라 너숨씨에반쯤은죽고말나라

은네는드른체도안이하고 눈을싸감더니 이만보도독가는디 무지홀놈이 일호스
 정업서 엇더케몹시 힘겨셔려쥌던지 은네의연홀살이 드는칼로의인듯이 빈
 들업시러져서 류혈이랑자하다

박씨부인이 은네의독홀미를맞는것
 을보고 감히말할마디 말니는수업고 다만남모르게 가삼만러지는듯홀중성각
 하기를

니가진짜져나야 은네가미를덜마즈려나

섬어 얼뜻교군에가 드려안지니 구씨가가장큰성식이나 너는듯이

령감고만진당하시오 철모로는것이 말마디나 잘못홀것을 깎히쥌지질것무엇잇
 소이이구두쇠야 아씨교군을타다 미거괴노코어서 아씨교군되시어라

구두쇠가 손에들엇던 미를집어던지고 버셔노앗던병거지를 얼뜻집어쓰고츠퉁월

이아자비와 교군압뒤치를 갈너메고

되셔라

오냐

ㅎ더니 네발을셔로맞추어 회호리바람에 가랑입떠나가듯 썰니가는양을 은네
가마쥬떡에리달너바라보고

아씨아씨엇지ㅎ자고 더러게가심닛가 그루명에무함을쓰고 발명업시가기만
ㅎ시면 엇지ㅎ자는 생각이셔요 가시지말고 너리심시오

구씨가겉네조각을 집어들고 디여드러 은네의입을트러막으며 이년아 령감드
르신다 당장뒤어질것을 일것엿쥬어셔 미를정지ㅎ닛가 웨소견업시 쥬동이
를놀이느냐

은네난드른체도 안이ㅎ고 여전히소리를질은다

여보시오 량반의딤풍속은이러ㅎ오 무죄흔며나님을성무함을ㅎ야 더러온루
명을뒤집어씨우고 유위부족ㅎ야 쫓기가지ㅎ셔오

이썸안이라별별소리를 조곰도괴탄안이ㅎ고 모다포빅을ㅎ니 려승디가원체정
신이 잇는터갓ㅎ면 구씨에죄상을 가히셔다르련마는 구씨에참소가 선입지
견이되야 은네에바른말은 귀스등에도 넘어들이지안이ㅎ고 도로혀 패스심이
년여필々뒤어 야단야단ㅎ는것을 구씨가연히쥬목을쳐셔 갈로막으며글너늦터

나

(구) 은네야 네가그런줄몰나더니 아쥬소견이업다 령감세셔 분노ㅎ신터이니
할말이당연이잇더리도 츄츄엿쥬는것이가ㅎ거늘 입에서나오논디로물퍼붓
듯ㅎ야노앗스니엇지ㅎ니 미을더맛지 안이ㅎ겟느냐 오나네말이 다그르다는
것은안인즉 차차엿쥬어셔 아씨발명을 ㅎ야쥬는것이 을치아니ㅎ냐 너안이
기로너마음인들 은씨에게 ㅎㅎ야 아모조록 루명을면ㅎ고 집안이 화락ㅎ게
지니기를힘써 쥬션ㅎ지안이ㅎ겟느냐 그디넘너난말고 지금이라도 은씨를싸
라가러거든가보고 그러치안커던 덕에썰러져잇다가 죠만은은씨가 오기을기
터러보렴어나

은네가 아모디답업시 안져싱각을ㅎ야보다가 너심으로

네가만일안이가고 여괴잇스면 은씨게셔 나의몸슬미맛는것을 보시고가셔셔
죽엇는지 살앗는지 믿음도늦쳐 못ㅎ실련이와 데일강직ㅎ신 은씨성품에루
명드르신일을 절분하역이셔 즈수로도라가시기가 심상팔구인즉 니가세상업
셔도 엿괴어셔 은씨를 쫓츠가야ㅎ겟다

ㅎ고손에잡히는디로 부지깅이를 집히이삼아집어집고 절둑々々 디문밖을나셔
남디문밖그로나아가 동적이 모리듬을당도ㅎ얏더라일세는점을고 미마진다리
는압ㅎ셔강가에가 펼쳐쥬져안져셔 눈몰이더벽々々 떠러지며 탄식ㅎ는말이라

에그더건너서편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산이 양천쌍이아닌가 우리뒤이 아왕에
논저괴게시더니.....

저괴그저계셨스면 언마안이 가도 드러가겟구면 지금충청도로 떠나가게시니
이모양으로 가면 몇날을걸어야 득달할지모로겟지

그리호즈 스공이나루비를 건너다더이고

엇의로가시는 아나네신지 비를안이라사람잇가 건너가실터이면 어셔이비를
타십시오

은네가 저의으씨차져갈욕심으로 그비에를을나 강은근너갓스나 충청도라는데
를말만드러지 언으방편으로붓터는지 알지도못호고 다만동작이로 건너간다잇
가 건너왔는데 미마즈다리가 치져려서 촌보를무음덕로 못떼여늦켓난중 수중
에노슈훈핀업스니 엇지기가 막히지안아호리오 아모리구중에 들어안졌던터난
안아로터 남즈와달나 편발쳐녀가 초촌걸식을 호는슈는업고 스제가씩죽을슈
한가지 밧게업는지라 압흔것을참고 그곳까지오는 십성구스를호들리도아못
조록 저의아씨를싸라가서 몇히가되던지 되시고잇다가 려승시아달이 줄업을
호고 도라와셔아씨에이디호물 쳐닷고가슴이시원호게 설쳐호는것을보자는작
덩아러니 아모리형인보는디로 저에으씨 형식을물어도 도모지알슈가 업난지
라진퇴가량난호야 호즈한탄호기를

니가팔스즈가 험악호야 양반에뒤에나 부자스집에 티어나지를 못호고천호
에 하레비의몸이되야스니 천싱라고난던디에 억지로분수를 적히지안이호면
도리가아니어니십어 아모도록우리아씨를 정성것섬기어 아씨게셔너게 후호
배구르시논은덕을만분의 일이라도 갑즈호앗다니 마음과일이갓지못호야 오
날날굽도젧도못호스세를당호앗스니 이난나의생의가 부족호탕으로 하늘리
밋게녀이심이라 찰호리더강물에빠져서 세상을진시 이져브리리라

호고잔신힘압흔다리를알고 강스가으로 향호라는데 엇더호즈가 서편언덕넘어
로 충충나려오더니 은네압호를싸가로막으며

(그자) 엇의스논 쳐녀인디 이고디셔 호노방황호노

(은).....

(그자) 스정은알슈업스나 보아호니 몸을잘쓰지못호니 어진연고인고

(은).....

(그자) 필연엇의가되단하 편치못호 모양인즉 나와니집으로 드러가 잠시간도
섭을호는것이엇더호고

니집이 예서멀지안이호고 심히중용호니 아모염려말고 어셔가즈호며 언스가
극히상업지안이호야 지지스슴간곡하 말을호는지라 은네가 감안이싱각호주
죽을무음은 스세부득이 싱긴것이니 적이성명을 부지호도리곳잇스면아모

쥬록 살아서 우리아씨 설분을향야 드리는 것이 당연한디 더스름을 보아하니
 상업지안아뢰이니 짜라가형편을보와 아씨딴을 초자갈쥬션을향리라
 향고못의의논체 그사름을짜라 비척비척넘어져가며 두어모둥이를 지나엇더흐
 디초뒤의 썩로잇는집으로 드러가노라니 그사름이압셔셔 드러가며
 여보마누라 어셔나오

나히근스십된녀인이 심퍼런반물초마에 국단회헝초마를 늘너씩고 방으로서
 마쇼나오디니 은혜를보고

(녀) 에그령감 잇의셔 더런얌던흔쳐녀을 디리고오시오

(그자) 응아약이논초초듯고 건너방으로인도향야 먹을것이나 쥬디접향오

그녀인이 은혜을잇겜어 방으로도드러가더니 석자리른녀여 쌀녀안치고 분쥬하
 석반을져어 반찬갓초아드려노코

(녀) 필경시장을터인디 아모반찬업논 염반아남아 쥬조지저

(은) 예-먹겜이다 죽게된인성을 이쳐럼구제를향시아 감스무디향외다말은

이딴이뉘딴이셔오

그자가방문을열고 드러다보며

쥬인이누구인지 초초알녀이와 어셔밥을쥬자셔 괴자의감식은 면치못할일이
 라온네가 당장속이비여정신을 자일쥬업스닛가 상압으로닥아안디 그밥을

다소간먹은후에 상를물여노코 안젓노라니 그자녀외가 드러와 것히와안즈며
 (그자) 웨밥을그러케 쥬곰조섯셔 아마반찬이업셔그랬지
 (은) 천만에 말씀도향심니다 이쳐럼잘차려쥬셔셔 비부르게 만히먹엇슴이다
 (그자) 쥬곰조시고도 만히먹엇다닛가 쥬인된마음에 얼마쥬쥬흔결방이누쥬향
 지만은 일제가임의 점으릿스니편이누어즈고 리일리약이를향지
 향며बाट로나아가라난디 녀인이무엇이라고 말을향라고 입을막쥬여노으랴향
 는것을 그자가편잔을락쥬며

(그자) 녀편네가 무엇을안다고 출반좌향야젓거러드러 어셔나갑시다 더석
 씨곤흔디 일쥬잠을조게

은네가 시장은향고 갈바는업셔 스세부득이죽조고 결심을향앗다가 그자에구
 제향물엇어 석반을간곡히디접향고 편이누어즈도록 쥬션을향야쥬니 믿음에극
 히감스논향나 저의녀외간에향는거동이 아모려도쥬상스려워셔 밤이이유도록
 잠을안이즈고안젓다가 쥬결에 안방에서 쥬군쥬군젓거리는 음성이들니는지라
 문압흐로다거안져 귀을기우리고 흔춤듯다가 샘썩놀나 눈이둥그리지며 글넛
 던의복미무시을 분분히도로단단히미며 입속흔조말로

에구머녀녀가설을지고 불노드러오지안아헛는 더년놈에게 봉편을안이하랴
 면니몸을진작썩쳐 도망을향야할려인디 가다가죽던가 살던가 나흔아도

망하기는 어려울것업지만은 그것들이 혼을 가만히 미루어본즉 우리아씨께서
천덕으로 색가신줄로도 믿을슈업는디 나곳업스면 으씨거취를 탐지할도
리가업스즉 찰호리씨가 봉변을할지라도 여기있서 아조소식을 적실히 탐지
하는것이가하다

하고다시주저안져 그밤을지낸후에 열골에조곰도 의구한빛을 나타디지안이
하고 주인의성명은 리평보라하는자이니 구씨에이종스촌되는지이라 제집가제가
극하빈호호야 감은돌동리남의 협호에가잇스며 나루스벽들부려 성의를향더

니

제리종미구씨가 러승디의후취로 드러간후로는 비지삼을홀이던비를 안이부리
고 쥐일삼저에장죽을물고 피춤에손을저르고 일업시우으리동리로 슬슬도라단
니며 바둑장이나두고 쓸호되 나모호가지 주변을싱각을 아니호야도 티평으로
먹고업고쓰고호이 이는평보가 도적질을희거는 회지를홀것이안이라 씨도성기
는화슈분을 엇든연고이니 이화슈분은별것이안이라 주인의리종미 구씨가려승
디집으로 드러가살임을잡은후로 달달이시량과 철철이의차며 들름이용돈을뒤
로슬몇슬몇스런일별을업시 책척디주니 평보가업는 화슈분으로역기고 그제부
터는 주야장철들고먹고 놀고쓰난디 위인은게으르나 본심은별로홍악하지안이

호나 슈화간에편치못할스제라 강변으로홀노일부러 나아가는구씨에 부탁을드
른것이라 그잇는날 은네가하직하고 떠나가고져하니 평보가져스만류하는말이
가다니 천만의의말도호지 별말말고닉집에서얼마간 편히쉬이다가 닉가호
중갈 긴관이잇스니 그씨동행호아가는것이올치 몸도충실치못홀 녀즈가반견
도업스며 홀로엇지가갯다고 혼단말인고
평보에쳐 김성녀역시 붓잡는말이

에그그러케호지 도현호인심에 처녀의몸이혼자가다가 무슨일이잇슬난지도
모로난디바로닉집에올 안이드러왔스면이언이와 드러온이상에 주인된우리
가얼똥보닐리가잇나

은네가 지저지슴가갯다고 말들하다가 주인에눈치를 본즉용이허허락지안이
할지라 짐짓못의의난례하고 호칭더말을정답게붓친다

(은) 닉의분이 이처럼붓드시는디 엇지제고집디로 호오잇가 슈일간 더잇게슴
이다

(평) 응잘싱갯호앗군 지금떠나가다니 될슈가잇는말인가

(은) 넷말숨에 나를나은이도부모요 나를살인이다 부모라호호는디 제가할일
업시죽을것을 이처럼살이여주셔스니 지금부터두분을 어머니아바지로섬기
겿습니다

평보가 설々 우스며

네 말이 옹혹무괴다. 그러면 지금부터 너 설々 노릇을 하여라.

(은) 예가 이려나. 평보압히가 놀아갈 듯시. 절을 하며 호부호모를 하였더라.

(평) 이이네가 남에 너 설이 된 이상에 무엇은 회개겠느냐. 네 일홈이 무엇이냐.

(은) 아모렴. 은회개질이 잇슴닛가. 제 일홈은 은순이옵고. 나흔 열닐곱살이옵시

다.

김성녀가 썩나안지며

(김) 여보령감. 더이가 우리 설 되라는 전성팔조. 인가보오.

(평) 웨그리오.

(김) 우리아가 일홈이 금순인디. 더이 일홈이 은순이라니. 아모가 듯들리도. 런성

형제에 일홈갓지안이호오.

(평) 글세요. 싸우심상치안이호오.

은네가 일홈흔조를 변하여 말하기는. 본식을 달로치안이호오. 는 계교인디. 평보

너외에 말하는 양이 변한 일홈을 더욱 반겨하느니라.

얼마쯤 다하니. 녀이여. 영민하던 성에 눈치빠르게. 입에 혀일반으로. 평보너외을 섬

기며. 설을 문는 말이라.

(은) 아버지. 거번의 강스에는. 엇지히서. 맞춤나오셨다가. 나를 만나셨셔오.

(평) 별셔너갓흔 설을. 엇들팔스조이닛간. 우연히마음이 쓸이여셔. 나갓섯구나.

(은) 문안드러가시면. 누집에다. 주인을. 명하셔요.

(평) 주인여부가잇느냐. 예셔. 문안이. 엇드러지면. 코다을. 만하닛가. 아춤에. 들러가

실권볼. 일홈보고. 저역씩면. 나오는. 것을. 주인잡을. 여부가잇느냐.

(은) 그리면. 일가집도. 문안업느냐.

(평) 그것은. 웨그리. 못느냐. 무슨일이. 잇네.

(은) 일우무슨일이. 잇겟슴잇가. 이다음에. 후. 서울구경을. 가덜리도. 처자가. 잔말

숨이지오. 그러나. 언제. 씬. 충. 청. 도를. 떠. 나. 셔. 오. 제. 가. 향. 로. 밧. 비. 가. 보. 오. 야. 할. 터. 인. 디.

오

(평) 이이그. 말. 잘. 낫. 다. 처음. 에. 는. 성. 소. 히. 셔. 네. 가. 바. 로. 디. 답. 을. 할. 듯. 심. 지. 안. 아. 조. 셔.

히. 못. 지. 을. 못. 하. 앓. 건. 이. 와. 네. 가. 충. 청. 도. 는. 웨. 괴. 어. 히. 같. 아. 고. 하. 나. 나.

(은) 어머니. 아. 바. 지. 게. 셔. 호. 중. 에. 게. 시. 닷. 가. 어. 셔. 가. 뵈. 오. 라. 고. 그. 리. 하. 요.

(평) 그리닛가. 너의. 집이. 호. 중. 이. 란. 말. 이. 지.

(은) 예. 그. 리. 하. 오.

(평) 그러면. 아. 주. 출. 가. 전. 처. 녀. 가. 서울. 은. 흥. 노. 엇. 지. 하. 야. 을. 나. 왔. 던. 냐.

은. 네. 가. 평. 보. 에. 말. 을. 드. 러. 보. 라. 고. 말. 사. 작. 을. 하. 앓. 다. 가. 되. 집. 어. 썩. 호. 문. 제. 을. 당. 하. 야.

얼. 뚝. 무. 어. 이. 라. 디. 답. 할. 말. 이. 업. 셔. 고. 귀. 를. 숙. 이. 고. 잠. 잠. 히. 안. 잤. 다. 가. 군. 식. 하. 게. 씬. 여. 디.

기를

(은) 제스촌형이 서울로시집을왔는데 친영에를단어러왔다가 올라오기에제가
 어린마음에 서울구경이 좋고 심히 어룬이말이시난것을 듯지아니하고 형의교
 군위를싸라오다가 발병도나고 다리도압혀 밋쳐싸라오지를못하고 뒤에떠러
 졌스니 그고정할줄알았다면 도로내집으로갈것을 어린고집에 설마자꾸썩츠
 가면 만능것지흔노릇이라서 집에서돈량모아두었던것을 어룬물너 가져온
 것이다업셔지고 갈바를일어서 정히망단하는판에 던형으로 아바지를뵈왔셔
 오 집을가면 죽게되였다가 아바지게서살너 쥬신말씀을코하고 곳다서울
 나와셔 언의새셔지던지 피시고지닐터이야오

(평) 오냐네말이 괴특하다 우리너의가 아들조식은업고 딸조식하나뿐인디 임
 의출가의인되고 압이허흥더니 네가잇슨이후로 믿음에든든지닌다 너일모
 레떠나는것은 아니로되 오러지아니할야 필경가기는 할것이니 부더너의부
 모씩 엇좁고도로올 준비를할야라

말하넌디도 속에는넌비포를하고 티답하는평보도 한걸을싸로두어서 은네는
 너가 당선네너외가 슈작하는것을아왕넌드러넌디 아모리너속을 썸으라고하
 여도 너가그러케어 슈룩하게 바로말을하나
 할야얼도당도안은 스촌형이니 누구이니허호말을하고 평보는네가 아모리설작

이때여보아라 너가모로나 오냐설이니 무엇지나할야 임병하고 붓즈바두는
 것만상척이다 그뒤일리아 서울누의남에 죽아서던지 살이시던지 너가간섭
 할곡절이잇느냐

할야들며나며 우리설 우리설할야 은네을붓잡아두기로 상척을슴더니 슈일후
 에 우레로편지호장이 드러오넌타 은네가 맛참문사간에를 나갓다가 레전부가
 집어던지며

편지집어드려가시오

은네가우연히집어본즉 피봉에홍앗스되

현호 팔동일호 리사과평보친전 숨청동숨십사동구호 려승디덕너간평셔
 은네의 두눈이번져셔여 이리저리 두어번뒤적뒤적보다가 얼룩허리춤에다 집
 어넛코 시침이올뚝썩은다

(김성녀) 아기밭게 누가와셔 찻는나

(은) 안이야오 지나가는스름들이 썩들었셔오

평보가이웃집에를갓다가도라오며

(평) 웬우레스령이 우리집압흐로나오니 어셔편지가왔습던잇가

(김) 편지는웬편지 우리집에는안이왔소

은네가슬몹이 뒤가마려운데하고 뒤스간에가셔 그편지를떼여본즉 이곳구씨에

친필이라

궁금하던츠 글서보고 집안별일업는것 알았네 은네란년은 현형으로부터
두엇다니 아못조룩 열녕열녕 제비위를맛초와 가며너괴별항기를 기되려쳐
치를항야유기및네 만일그년을늦쳤다는 총청도박씨에 집을츠즈가가 십상
팔구이니 그리고보면 전후정절이랄로될것이니 부디명심항여 며느리간곳
을부터 은네가눈치치오지못항게 항기및네 뒤강곳치네

은네가 보기를 다항의 분항고기가막하여 바로그편지를손에들고 썩여나아가
슴동리스동리를떠들며 저의으씨간곳을 가르쳐너라 야단을항라다가 다시무슨
싱각을항고 그편지를 책척접어속것고름에 단단히뒤여 김하간슈항고 아모는
치엄시 평보너의압해가 이삼부름 저삼부름을다항며 은근히궁이항기를

그편지스연을보닛가 우리으씨를필경 언의몹슬곳으로 보닉고 나를그되로두
엇다는 아씨천정덕으로가서 술받이터질갑아 리가시기여 붓잡아둔모양인되
다시괴별한다것은 다른것이안이라 아씨쳐치호회보를기다려 나를멀죽이
어디로팔아먹거는 그러치안으면 죽여업시항기라도 홀모양이니 괴왕모르면
이어나와 알고서진작변등을못항면 너호몸은 엇더케되던지 아씨구제를누
가호단말이나

항고빅가지천가지로 계교를싱각항다가

에라 외손바닥이 올슈가업스죽 너몸호아를 버릴세음잡고 호가지 변등을호
여야항겟다

항더니그날부터 분세슈를정히항고 의복미무시도 단정히항고 이웃에잇는식으로
지은기와집에를 종종드나들더라

그집주인 츠두령이라하는 스름은 과부에의달노 가세가씩부즈썩안이라나
은비록십제남짓히도 위인이불초항야 그동리안에서 도리머리질을치며 일동되
쇼스를 무비주장을호되도 너스할만호되 지날길에 은네의즈식을보고 삼중에흙
모호던츠 은네역시 차씨에게 외되홀스상이드러 틴을타서즈조단이다가 하로
는마츰종용호회를엇어 은네가차씨에집에를왔다가 짐짓비회를항며 열꽃도
라가지아니항니 차씨가호협호슈작으로 말들붓치는지라 은네가녕팔치안이항
고런연호되답으로 차씨마음을 흙죽게항야 부지중양인의정의가급히지닛가 그
제는

(은) 출가전천녀가 이갓흔형실에 범홀은 세상에용납지못홀죄오나 제가구련
에스못철만호 원정이잇서 항소홀곳이업던츠 동이간에 가만이나으리를뵈은
죽 높호신도량이 저의변변치못호 설원을항야 주심죽항읍기 림치를불계항
고 열좁는말이오니 가련호이닌성을 불상히역기시기를 바라는니다

(차) 그되가웃더호 원정이잇는지 모로겟소우리가피츠에 갓가히지되지를안이

잇스면 모로간이와 니가일흐나범연 홀리가잇나 스당을설명할면니힘자라는
디서지난 할여블러이지

은네가목이메여 늦겨올며 제가본리 박씨집스름으로려승디집에교던비로왔다
가려승디집풍파는일을일장이약이홀후 조기가미를맛고 쫓츠오다가 평보에
집에벗들여온일이며 우편으로온 구씨에편지를 바다보고감춘일을 다말할며허
리춤에서구씨에편지를니여보이며

(은) 이것을보시면 저의스정을 짐작할실지라 아무조록 힘을써주시면 죽어서
풀을미져서라도 은덕을감소리다

(차) 니가처음에 랍화봉접갓치 일시회통으로 그디를사괴엿거니와 지금그디
에 전후스정을드른즉 남의일리랄것시업시 분혼물이그지못할것스니 조두
말말고 나만밋고잇스면 오날부터 스면쇼쇼문을할야 볼것이니 아모념려말
고 잇스면만일 평보놈이 그디에게할야 무슨홍악한거조를할라거든 엿더
케할던지 니게로통기만할면 그디지평보놈은니슈단에업식노으라면어
렵지으니할지 안이그럴것도업지 구히여평보갓은 교약혼놈에 짐으로또가잇
슬것이 안이라 지금부터 아쥬니집에잇고 가지를말면 엿더할가

(은) 말씀은감스할오나 제가만일평보의 집에를안이가면 의심을더러니여당
장나으리씨도 도치못할말한마디라도 도라올러이오 일이발가될갑아 저에아
씨에게 화가더욱 급히미첼듯할오니 몬져말씀하시던리로 그놈의집에가다시
잇스며 스기를보아가며 조척를할오리니 하늘갓흔덕력으로 힘을쓰옵소서
차씨가그리할라허락하고 그날부터 여러가지일을다제치고 박씨부인 거취를담
지할기로 전력을할디라

그날박씨부인은 창황중교군에 드러안진후 눈물이압홀가리는데 은네미맛는소
리가동구밧게나오도록 은은히들이논지라 그경황업는중에도 혼조말로

에그저것이인제는죽나보다 아모죄도업는것이 팔조스오나은닉스름이되얏다
가 원통히미를맛고 죽겟지

죽기로할면 츠라히 니가죽어가슴들이시원하게 할것을이지경을당할며 구츠
히살앗다가 불상호은네가 저미를맛고 죽게할앗지

교군압장을 손바닥으로씩씩쳐며

여보게아범여보게아범

구두쇠가 드른체만체 교군압치를메고 짝고가다가 할여러번부른닛가 말지못
할야

(구두쇠) 웨그리십시오

(박) 니가잠간이즌것이잇네 덕으로도조름드러가세

(구두쇠) 예사지왔다가 엿더케도드러가오 이저바리신것이 잇거던이다음편

잇는디로 그별호심시오

(박) 이 스름이다음 그별호일싸로잇고 지금드러가볼일싸로잇지 톱드러가세
구두쇠가 그말디답을 다시안아호고 고기를슈굿호고 썰나 다라나니 박씨부인
이 사제부득이 도로드러가지을못호고 교군에담겨 일마줍을가는디 산이점점
거호고 길이초로어늘 마음에심히 의심이나서

(박) 여보게야범 예가어디로 나가는길인가 총청도를갈야면 강을건너 탄々디
로로만가는디 산이이러케길고 길이나모썬단이논디갓호니 웬일인가

(구두) 예거정마르십시오 아씨를못가실디로 모실이갓잇슴닛가 총청도를터로
로가즈면 강도건너고 길도크지만은 디단이머웁고 소로는줍험호기는호는갓
갑기가 큰길반

절박게안이됨이다

규중에서성장하박씨부인이 등서방향을 엇지침작호리오 구두쇠에 속이논말을
그러히듯고 다시말을안이호고가더니 구두쇠엇더호 큰바위밧헤다 교군을너려
뚫러나 쟁문이에질넛던 슈건을숙씨여 이마스전에 섬을이리더리씨며

에몹시덥다 여보게최서방 목마른디 우리져우리 술스집에가 술이논호잔식
먹세

교군뒤처를메엿든즈가

어! 그리호세 예서술스집이머지는 안이호가

두놈이 압셔거니뒤셔거니 오던길로되집어 느려가는지라 박씨처음에는

교군々이 의례하 총총이술을먹거니

호야티연무심호앗더니 단비호티나거진먹도록 소식아업는지라 믿음에 이상호
야 혼즈말로

이것들이 술을먹으러 어디로가서 아러케올리오지를안이호사

호며교군들창으로 고기를너여밀어 스면들들너보노란이 인가얼마나멀이잇는
지 눈에보이지는안이호고 다만저문연괴만산너머로쫓차 군데군데올나오난디
난디업는 시호마리가 슈플가지에안져 괴이호소리로두어마디젧거리더니 홀스
적나라 박씨라고안진교군우에가안난지라 혼즈말로

에구그시야 산골에서 교군을처음보아 스름탄거인줄모르고 바위스덩이나나
모등길로아나보다

점은부인마음이라 그식을붓잡을듯이 교군밧게를얼푯나서니 그씨가스름을보
고놀나지를안이호고 여전히안져 제소리를 젧거리기만호는지라 박씨가감안감
안히갓가하가서 한편손으로슬멋이니밀어 붓잡으라호며

에그고것어엽부기도호다 쇼곰만개 오식이영롱도호지

손이서희몸이 거진달만호닛가 그씨가팔작늘아 멀이가지를아니호고 길아러바

위위에 가녕금안더니 무슴쇼리를 또지저거리기만한지라 박씨가만가만꽃
차가서붓잡으랴흔죽 거진거진붓잡힐뜻하다가 또놀아서땀거름받게가 안논지
라

박씨가식붓잡기에만 참착하야 조금조금간다는것이 그렇지렁조고마흔 언덕
넘어가니 식논홀쳐날아 멀이다라나고 칩덤볼쓸리순은 압길을가리위논지라

응 고놈의식 잡힐듯잡할듯히셔예성지공연하 속아왔지 오던길이었의야 교
군선이와보고 뇌가업는것을보면 착노라고 이를쓰게네

하며풀을 헛쳐가며 몇거름을올나오노라넷가 즈그타고온 표군덥장이 남실남
실퇴이논티 엇던스름 스오명이 총총도라셔서 이리저리 기웃기웃하며 제각기
홀마디식 짓거리논지라 박씨가간담이떠러지게 놀나와셔 그것바위틈에가감
안이업티려 칩덤볼로 몸을가리고 동정만보고잇노라니 여러놈이스면으로차
저단야며 아놈이계집은 쉼데다 팔아먹고 빈표군만갓다 노앗단말인가 세상이
아모리허무하기로 띠금호남의돈을 천여금식바다먹고 빈표군만갓다노앗슬
리는업고 이것이 어디로도망을 놓앗단말인고

이스름들 썰들지말고 구석구석잘츠즈보게 아마뒤를보러 엇의로갓나보이
뒤는무슨뒤를 이르게오리본단말인가 우리가온지가 벌서언전가 필경무슨눈
치를치오고 가로신논비 가로시면제가얼마나가갓는 왓치풀어져도 솟안에잇

갓지 우리몇몇은 저아리동구에가파슈를보고 몇은산마루마다저히고 즈네와
논논 아골작이안을 현누덕이에 이잡듯 샷샷시뒤져보제그라

박씨가지척에서 그놈들에 짓거리논소리를드르니 스지가썰니고 겁이나셔으
수홀구석에가 밧작숨어 드러안졌논티 그놈들이우둥우둥 박씨숨어잇는압호로
몇차례왔다갓다하면서도 전여히알지를못하고 한갓육설만 물피붓듯흔다

요련양금호년보게 며느리파라먹는 려승지의마누라년도 괴약호년이지만은
요년으로말하면 괴왕제몸이팔여오난터이니 제팔스즈호탄아나하고 다소곳
하고 쓰라가셔 식로맛는서방이나 잘섬길생각을안이하고 소견업시제가도망
을호면 엇의를갈러인가

오냐십년도망읍단다 제가가도십년이십니를 버셔나지못하야쓸터이니 붓잡
혀우리손에 경칠씨가 잇스리라
이사름가만이잇게 구두쇠놈을 쫓츠가붓들어노코 나모라도썩가세우고 돌이
라도다듬어 세우라고 디리죽이세

에 그말도판게치안은말일세 즈네이사름져사름들만다리고 달음박질쫓츠가
잡아오게

세놈이 우당탕탕오던길로 뛰여가던이 거미구에구두쇠를 오듬쳐진상을하야흙
쳐들고오더니 여러놈이쫓도라셔서 보기쇼케발스길질을 툭탁스스하며

이놈아게집쳐저노아라 구렁이아티럭긋치 쓰른돈을밧아가고 계집은센데다가 팔아먹엇서

구두쇠가 발스길채인데를 움켜쥐고 에구구살여줍시오 다른딴다 팔아먹엇슬리가 잇슴닛가 분명교군에단처로 에다노코말슴을 엇쥬러갓섯는디 아마여러분이오서난것을보고 이근처에 엇의숨어이나보이다

여러놈이일시에

숨기는엇의가숨어 바늘이던냐 안이보이게 이동학안에난 얼리천기척기도업다우리여러눈이 안이차본디업시 다차자보았다

구두쇠가 혼즈말로헛튼밍세를호변 떼여분치며

이런제미 썩붓칠알도다 보앗구 그동안방정맛게 엇의로갓담 감안이들게시오 제가좁츠즈보오리다

항고구두쇠가 길스가에섯는 참나모가지항나를 썩씩거겨구루들고 가지를쑥쑥썩썩바리더니 쥬면이칼을니여 손잡이를 디강디강 다듬어집고 산골짜기로나려가며

가기는 엇의를갓슬가 팔경이안에 숨어잇겟지 공연히철모르고숨으면 될터인가 진작나서서 싸라갓스면 즈기팔즈가 뒤에서구박밧고 잇는것보다 아쥬편홀터인디 엇지자고 숨어잇노 숨어잇다가 들키기만하면 더봉변일썰

이놈이갓치 쥬착업는말을 짓거리며 불양호눈을 등잔갓치부릅뜨고 분쥬히찾는디 하늘이박씨를 불상히녀기심이런지 허가누엇々々너머가즈 난디업는남똥이슬슬볼며 먹볼갈아부은듯호 구름쌍이둥게둥게 휘여올나 원항날을턱덤던이 비방울이 잇싸감식 뚝々떨러지며 지척을분변기어려온지라 구두쇠가박씨를찾기노고사하고 업드러지며 잡바지며 교군잇는곳을 천신만고차즈오니 그자들이벌서 연의세갓난지 호나도업난지라 혼즈말로 사름들도남을혼즈 너버리고 다다라났담 에라고만두어라 너가이계집을쳐 쥬면 평성먹고입고 살슈가날러이나 잘히야돈빚집어쥬면쥬고 말면말것인디 이무셔운밤에 혼즈사성결단하고 덤뵈여츠즐것이 무엇잇느냐 아쥬못찾난디 도나노 마님이식이는터로 호로롯이지 너쥬칙으로 호것은안이닛가 부딤길스름은 싸로잇지

호며회적회적너려가는향을 보고박씨가그제는 바위틈에서나와서여러가지로싱각를호야보는것이라

너놈들에게 육은 현형으로모면호앗구면 신체이지경에 구々히살아서는무엇하나 차라하이바위돌에 머리를부딤져죽어야올차

에그나호복술쥬기는 여반장이자마는 슈말이밧게가잇는 가장을다시못보는일과 죽어살썩지못호를 루명을 밧명치못호는일과 무죄호우네가 몹슬미를마즌후